

2024년 11월 10일 “(생명의 공동체 13) 영생의 참 모습”(시 133)

다윗이 왕이 된 후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려는 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애도를 통한 화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개인적 감정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으로 온 백성이 애가를 노래하게 했습니다. 애도는 죽음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많은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삼하 1 장).

전쟁터에서 사울의 시신을 찾아 장사를 지내 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의리를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삼하 2 장).

사울 쪽 장수 아브넬이 죽자 애도하며 장례를 치러줍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 부하들에게 죽자 다윗은 부하들을 처형하고 이스보셋의 장사를 지내 줍니다(삼하 3-4 장).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데려다가 돌보면서 왕가의 유산들을 회복시켜 줍니다(삼하 9 장).

사울 왕가와 화해의 일을 하며 이스라엘 온 지파들의 인정을 받고 왕으로 등극합니다(삼하 5 장). 그리고 왕위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고백한 찬양 중 하나가 바로 시 133 편입니다.

그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 최고의 영생의 꽃피운 모습이라며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공동체에서 서로 연결되어 화목한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기반이라 믿었습니다.

[2] 왕조 후기에 당한 고난

다윗은 외부적으로 주변국가들을 평정했습니다(삼하 8 장/10 장). 그의 왕국은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신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자 다윗을 향해 욕과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시므이(사울 친척)는 다윗을 쫓아와 저주합니다(삼하 16:7-8, 9-12 읽음).

전쟁이 벌어졌지만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이 궁으로 귀환하던 길에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와 사죄합니다. 이에 아비새는 가당치 않다고 했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합니다(삼하 19:21-23 참고).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내가 오늘서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국의 왕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았다며, 왕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린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만일 이 자를 죽이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되지 못한다는 뜻을 내포한 공동체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3] 영생의 꽃피움 <맺음>

형제 자매가 어우러져서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말은 사이 좋고, 착하고, 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쉽습니다. 반목도,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는 사실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활의 생명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지체들의 성격과 습관이 어떠하든, 연결되고 하나되어 함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날 많은 공동체들이 옳고 그른 것에 휘둘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많은 일들이 이슈화되어 있어서 각자의 편향적 성향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돼! 이것 만이 옳아! 라는 식입니다. 과연 무엇이 가장 옳은 길인가요? 이런 이슈들을 내려놓고 편향적 성향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하여 어우러진 모습으로 부활의 생명(영생)을 꽃피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함께 정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다윗이 보여준 화해의 일들을 열거해 보고(사무엘하) 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을 말씀해 봅시다.
2. 내가 처한 공동체(가정, 목장, 교회, 직장)에서 나는 화목을 위해 어떤 태도와 행동을 추구합니까?